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하 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

Study on the Method to Design Syllabus for Immigrant Wo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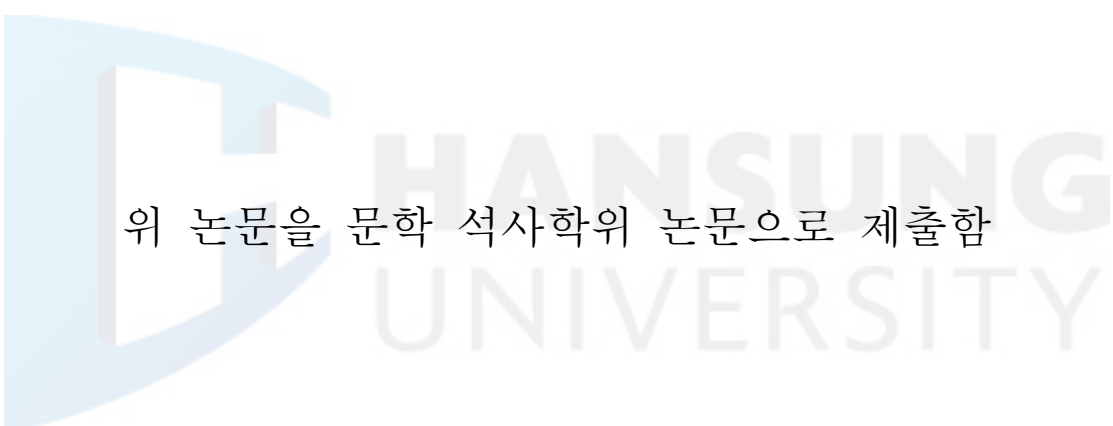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하 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

Study on the Method to Design Syllabus for Immigrant Worker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문학과
한국어 교육 전공
김 하 림

국 문 초 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국어교육 전공

김 하 립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핵심으로 하는 혼합-다층적 교수요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이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대화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화문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적은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를 전제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양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수요목의 정의와 유형 제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적절한 교수요목으로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 기준의 틀을 마련하여 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내적 구성과 대화

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적 구성 분석을 통해 각 교재가 바탕으로 하는 교수요목을 확인하였고 대화문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상황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지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요목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상황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차후 진행되어야 할 논의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이주노동자, 교수요목, 한국어 교수요목, 상황 중심 교수요목, 교재 분석, 대화문, 의사소통, 의사소통 요소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3
1.3. 선행연구	4
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8
2.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8
2.1.1. 이주노동자의 현황	8
2.1.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양상	11
2.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71
2.2.1. 교수요목의 정의와 유형	71
2.2.2.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황 중심 교수요목	32
3.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62
3.1. 분석 교재	26
3.2. 분석 항목	28
3.3. 분석의 실제	31
3.4. 분석 결과	69
4.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67
4.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법	67
4.2. 상황 중심 교수요목 구성을 위한 상황 목록	87

4.3. 상황 중심 교수요목 제시	8
5. 결 론	89
참 고 문 헌	91
ABSTRACT	95



표 목 차

<표 1> 비전문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9
<표 2> 국내 체류 외국인 수(2013. 12. 31 기준) (단위 : 명, (%))	10
<표 3> 사전 취업 교육 내용 및 시간	11
<표 4> 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3
<표 5>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5
<표 6>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7
<표 7> 교재 분석 항목	82
<표 8>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내적 구성 분석표	1
<표 9>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대화문 분석표	4
<표 1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내적 구성 분석표	7
<표 1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대화문 분석표	8
<표 12>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내적 구성 분석표	10
<표 13>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대화문 분석표	3
<표 14>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내적 구성 분석표	7
<표 15>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대화문 분석표	10
<표 16>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내적 구성 분석표	54
<표 17>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대화문 분석표	59
<표 18> 교재 분석 결과	47
<표 19> 직장생활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 목록	9
<표 20>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 목록	10
<표 21> 세분화된 상황 목록	28
<표 22> 상황에 맞는 대화문의 예시-1	4
<표 23> 상황에 맞는 대화문의 예시-2	5
<표 24>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방안과 그 실재를 제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교수요목에 대한 이해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이 필요하다.

교수요목은 교육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교수요목이 바탕이 되는가에 따라 그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확인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3대 요소를 학습자와 교사, 교재라고 한다. 이 중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매개물이자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의 도구이다. 또한 교재 안에는 교육 목표 및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 교재를 교육과정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재 구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수요목이다. 김정숙(2002)에서는 교수요목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도로서 교재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분석을 통해 각 교재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수요목을 알 수 있으며 각 교수요목이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에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처음 실시된 이래로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질적·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에 발맞추어 수많은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발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한국어 교육 대상자를 아우를만한 교육과정이나 교재는 없다. 한국어 교육의 초기에는 한국어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가 됨으로써 그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에서 인력을 유입하기 시

작했고 이 제도에 따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국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들은 연수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연수생일 때는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근로자의 신분을 얻게 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고충 상담, 산업 재해 등과 같은 노동과 관련된 복지 혜택이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적응 교육 등의 복지 정책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게 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은 체류 기한이 있어 돌아갈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김재욱, 2012: 68-70).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이들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꼭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건축업 등의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데 이주노동자와 노동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상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혜(2003)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과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이 그것이다.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은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 등으로 나뉜다.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은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과는 달리 일상영역에 필요한 한국어와 더불어 전문영역에 관한 한국어를 학습자에게 가르치게 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역시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보다는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알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수행만을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의 틀 안에서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 가운데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국가적 단위에서 개발이 된 것은 아니나 각 대학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과 같이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와 교재 개발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기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 2000년대 이후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 연구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이유로 겪는 어려움을 줄여 나가야 한다.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의 구성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교수요목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선정할 것이다. 교수요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각각의 교수요목이 가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가장 알맞은 교수요목을 선정하기 위함이며 그에 따라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으

로서 가장 적절하단 것을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교재의 분석을 통해 각 교재가 어떤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 적절한지 확인할 것이다.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매개물이자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의 도구로써 교재의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나타난 교육 내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 방안을 바탕으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실례를 제시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구민숙(2001)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 가운데 이 연구에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요목 설계와 교재 분석 및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다. 교수요목 설계와 교재 개발은 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구민숙(2001), 안설희(2003), 추혜정(2004), 전지향(2005), 조선경(2006), 이종선(2009), 최혜진(2011), 오인미(2012) 등이 있다.

구민숙(2001)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 현황과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 구성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제 단원을 구성했다. 이 논문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교수요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원의 구성만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안설희(2003)는 이주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교육 과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요구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고 언어 영역별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즉, 교수요목 설계로 이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추혜정(2004)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설문지를 통한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재 구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단원 구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제시한 단원의 구성 요소들이 일반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의 단원 구성요소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전지향(2005)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했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선정하여서 실제자료를 구축하고 제시하였다. 기존 교재에 있던 과제를 일반 과제로 선정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하지만 기존 교재에 없던 과제들을 특정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 둘을 종합하여 교수요목에 필요한 과제 단위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설계한 과제를 구체적인 수업용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적인 교수요목과 단원 구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경(2006)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특수목적 언어 교육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주노동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필요도와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구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고 실제 단원 구성의 예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단원의 구성 요소가 일반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의 단원 구성 요소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종선(2009)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재와 요구조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의 부재와 직업목적의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수요목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교수요목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까지 고려한 교수요목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단원의 구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혜진(2011)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이주노동자 제도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학기관의 한국어 교육 정규과정과 이주민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비정규과정을 비교하였고 이주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하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학습모형으로 모듈형 학습모형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모듈형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수업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언어 숙달도 향상을 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모듈형 교육과정을 실행할 교재로 연세대 교재를 선정함으로써 그 내용이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오인미(2012)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재 분석을 통해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출판된 교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 분석을 통하여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 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내용을 자료로 구축할 것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재 개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이주노동자에게 적합한 교수요목 설계와 실제적인 단원 구성의 제시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부재 혹은 부족함을 느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이다. 각각의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진일보하였으나 각 연구들은 한계

점이 있다.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에 그친 연구도 있었고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실제적인 단원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수요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업자료를 제시한다.



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이 연구의 한국어 교육 대상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을 지칭하는 말 중 하나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을 지칭하는 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다양하다. 김주아(2013)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을 인용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한 법적인 명칭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였다. 또한 동 법률 제2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동조전단)”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노동자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제외하고 단순 기능직에 해당하는 외국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명칭을 이주노동자로 통일한다.¹⁾

국내 체류자격을 외국 인력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단순 기능직에 한정짓고 있는데 통계연보²⁾에 따르면 단순 기능직에 속하는 체류외국인의 자격은 E-9(비전문 취업), E-10(선원 취업), H-2(방문 취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E-9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E-10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H-2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기에 이 연구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2.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2.1.1. 이주노동자 현황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며 국력을

1) 안설희(2003)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유엔 총회에서의 정의를 따라 ‘이주노동자’로 기술했던 후 단순직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해외에 과시하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계의 투쟁으로 인하여 국내 노동시장에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더불어 3D(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의 기피 현상이 나타났고, 국내 노동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말미암아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현상, 소규모 업체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으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서광석 2008:2-3).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은 정부에서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전문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비전문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전문 취업	188,363	220,319	234,295	230,237	246,695

비전문 취업 자격의 외국인 즉, 이주노동자는 2012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외국인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들이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76,034명이다. 그 가운데 유학생은 60,466명, 결혼이민자는 150,865명에 불과한 반면 취업목적을 가진 외국인은 549,202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은 50,166명이며 단순 기능직은 499,036명이다.³⁾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표 2> 국내 체류 외국인 수(2013. 12. 31 기준) (단위 : 명,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	1,576,034(100)				
외국인 유학생	60,466(3.8)				
결혼이민자	150,865 (9.6)	남성 결혼이민자		22,039(14.6)	
		여성 결혼이민자		128,826 (85.4)	
취업목적 외국인	549,202 (34.8)	전 문 직	50,166(9.1)		
			단 순 기 능 직	비전문 취업	246,695 (45)
		선원 취업		12,163 (2.2)	
		방문 취업		240,178 (43.7)	
		기타 ⁴⁾		815,501(51.7)	

단순 기능직에는 비전문 취업과 선원 취업, 방문 취업의 인원이 모두 포함되어 50만 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선원 취업과 방문 취업 자격의 외국인을 제외한 비전문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가 있다. 유학생과 비교해 보아도 그 수가 4배 정도이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대학이라는 전문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연구와 개발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체류기한 제한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져있는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필요하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해볼 때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기타에는 단기 체류자와 영주자격(F-5), 재외동포(F-4) 등이 포함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1.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양상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크게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입국 후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사전 취업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은 없다. 다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독학으로 준비하거나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전 취업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취업 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영석(2009)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선출 및 송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송출국가와 고용허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05년부터 해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시험에 합격한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송부하면 외국인 구직자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은 구직자 명부에 올라 사전 취업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전 취업 교육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사전 취업 교육 시간은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현재는 한국어 교육 38시간, 한국문화의 이해 7시간으로 총 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hrdkore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 3> 사전 취업 교육 내용 및 시간

과목 및 교육내용	시간
한국어 교육	38
한국문화의 이해	7
소계	45

사전 취업 교육을 하는 기관은 송출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며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전 취업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실재를 알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시간과 내용에 대해 각 송출 국가에 고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에 일임하고 있기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으로의 송출이 결정되고 사전 취업 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

취업이 결정되어 입국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취업 분야와 송출 국가에 따라 국내의 취업 교육기관에서 2박 3일 또는 3일 동안 총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⁵⁾ 16시간 이상 받게 되는 교육은 취업에 관한 교육이며 그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이 끝나면 취업을 하게 된 곳으로 가게 된다. 결국 이주노동자가 입국 전 사전 취업 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틀어 받게 되는 한국어 교육은 50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부족하다. 사전 취업 교육을 받기 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기는 할 테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은 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에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말하기와 듣기 학습의 부족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취업 전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취업 후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의 자율에 맡긴다. 이주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에서 따로 부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을 하는 유학생들처럼 전문기관이 있어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종교단체나 외국인력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사설기관 등에서 교육이 진행된다.⁶⁾ 이곳들은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국어

5)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몽골, 베트남, 태국 출신의 경우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산하 취업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 외 국가 출신의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취업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농축산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취업 교육장에서, 어업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취업 교육장에서, 건설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대한건설협회 산하 취업교육장에서 취업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뿐 아니라 컴퓨터, 태권도,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외국인력지원기관으로 전국에 7개의 거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오인미 2012:11-12).⁷⁾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한국어 교육이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갖추고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관	수업 기간	수업 시수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습 대상자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TOPIK 대비반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고급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자격증 대비반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기초, 초급, 중급, 고급

6) 2011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였다.

7) 7개 거점 기관의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전국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홈페이지
1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gimhaekorea.or.kr
2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dfwc.or.kr
3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infc.or.kr
4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ufwc.or.kr
5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mfwc.or.kr
6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cfwc.or.kr
7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창원외국인력 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고급
천안외국인력 지원센터	3개월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자격증 반
한국외국인력 지원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TOPIK 대비반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보통 수업 기간은 1년에 2학기를 진행하고 한 학기당 20주차에 수업 기간을 가지고 있다.⁸⁾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만 수업 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시수는 모두 1주 1회 2시간으로서 주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7개 기관 모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를 교재로 삼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 교재는 201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발행한 교재로서 7개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어 위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습대상자는 7개 기관이 조금씩 달랐고 명칭 또한 달랐다.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초급-고급’반만을 운영하고 있고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는 ‘기초-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센터들은 초급에서 TOPIK 대비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TOPIK 대비반을 자격증 반으로 칭하는 곳도 있었다.

김재욱(2012)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150여 곳이며 이들의 주 목적은 인권 보호와 선교라고 하였다. 외국인력지원센터가 7개의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7개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8)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술하였고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전화로 문의하여 기술하였다.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도 포함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어다
은(2012)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제시한
다.

<표 5>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관	수업 기간	수업 시수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습 대상자
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서강한국어 1A-3A	가나다, 초급반, 중급반
성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아름다운 한국어1, 2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북 외국인 근로자 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연세한국어1, 2	왕초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평일반), 필리핀 공동체, 중국 공동체(주말반)
안산시 제일 외국인 비전 센터	1년 3학기 학기당 16주	1주 1회 1시간 20분	아름다운 한국어1, 비즈니스 한국어	왕초보, 초급, 중급(평일반, 주말반)
유락 종합 사회복지관	1년 3학기 학기당 16주	1주 1회 2시간	서울대 교재 '한국어' 1~4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과정
은평 외국인 근로자 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0주	1주 1회 2시간 30분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첫걸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평일반, 주말반)
외국인 비전 센터	1년 2학기 학기당 24주	1주 1회 1시간 30분	Easy Korean1, 2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어 교육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교재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고 배포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각각 교재가 달랐다. 주로 대학기관에서 발행한 일반목적 한국어교재를 사용하였고 은평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수업 기간은 안산시 제일 외국인 비전 센터와 유락 사회종합복지관은 학기당 16주씩 1년에 3학기제로 운영되며 외국인 비전 센터는 학기당 24주씩 1년에 2학기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는 학기당 20주씩 1년에 2학기제로 운영된다. 수업 시수는 1주일에 1회씩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사이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일반이 있는 센터의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수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습 대상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입문 또는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고르게 있었고 외국인력지원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 TOPIK 시험을 대비한 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와 민간단체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평균적으로 1년에 2회 20주에 걸쳐서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기가 1주일에 2시간씩 20주에 걸쳐 진행된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에 40시간에 불과하다. 황진(2010)에서도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주로 1년에 2학기제로 운영하고 각 학기당 20주, 1주일에 1회의 2시간씩 한국어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중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말 중 하루 1회 1-3시간 정도로 이루어진다. 주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하고 저녁에 수업을 진행하려 해도 일이 늦게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찍 끝난다 해도 저녁에는 이주노동자들이 피곤함을 이유로 수업을 기피하여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취업 전에 배우는 한국어 교육 시간과도 큰 차이가 없다. 적은 교육시간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재욱(2012)에서도 밝혔듯이 이주노동자의 환경이 개선되기 전에는 학습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기에 적은 교육시간을 활용해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시간의 부족은 언어 사용의 숙달이나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각 기관의 교재사용 현황을 통해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모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대학기관에서 발행한 일반목적의 한국어교재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의 교재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2.2.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수요목

2.2.1. 교수요목의 정의와 유형

교수요목은 흔히 교육과정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은 다른 개념이다. 민현식(2004)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수요목보다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수요목은 교육과정의 일부 구성요소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교육과정은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수 방법, 평가를 통틀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며 교수요목은 평가를 제외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을 구체화하여 설계한 것으로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872).

신미영(2010)에서는 언어교육에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수 내용이라 보았고 그 교수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과서(교재)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수요목은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라고 하였다. 김정숙(2002)에서도 교수요목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도로서 교재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다. 전통적 의미

에서의 교수요목은 단순히 교육 내용만이 포함되었으나, 교육에서 과정이 중시되면서 교육방법이나 평가가 교수요목에 포함됐다고 했다.

따라서 교수요목이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선택한 후 그 순서를 정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상세화하여 교재 구성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수요목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신미영(2010)은 교수요목은 언어관과 언어교육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요목을 연구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가운데서 세 학자의 연구가 현재 교수요목 연구에 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Wilkins(1976)는 교수요목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통합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교수요목은 언어의 구성요소를 개별적·단계적으로 교수하여 언어구조가 쌓여 전체를 이룰 때까지 점진적 누적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접근법에는 문법 중심 교수요목과 개념-기능 교수요목이 속한다. 분석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교수요목은 언어를 등급화 하여 제시하지 않고 언어 내용보다는 경험적 내용의 사용과 언어가 사용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경험적 내용에는 상황과 주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교수요목이 구조화된다. 이 접근법에는 절차 중심 교수요목과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속한다.

White(1988)는 교수요목에 대한 접근을 학습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Type A형과 학습 과정을 중점으로 하는 Type B형으로 나누었다. Type A형은 학습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결과중심 교수요목 접근법으로서 학습 내용을 전문가가 정하고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습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습자를 평가한다. 구조 중심 교수요목, 상황 중심 교수요목, 화제 중심 교수요목, 개념-기능 교수요목 등이 속한다. Type B형은 내용보다는 학습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두는 과정중심 교수요목 접근법으로서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 절차 중심 교수요목 등이 속한다.

Nunan(1988)은 교수요목을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 접근법과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 접근법으로 나누었다.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 접근법은 학습의 결과인 지

식과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 접근법은 지식과 기능을 얻는 과정을 중시하여 학습 경험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시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 절차 중심 교수요목이 포함된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에는 문법 중심 교수요목과 상황 중심 교수요목, 화제 중심 교수요목,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 등이 속하고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에는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 절차 중심 교수요목 등이 속한다. 각 교수요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법 중심 교수요목

문법 중심 교수요목은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교수요목으로 언어의 사용보다는 언어의 용법을 중요시하는 교수요목으로서 구조 중심 교수요목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의 기능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교수요목이며 학습자가 아닌 교사 중심의 교수요목이다. 이 교수요목은 목표어의 문법과 문장 구조 및 규칙에 초점을 둔 교수요목으로 내용의 선택과 배열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으로 또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순으로 이루어진다. 내용 배열의 기준은 간결성과 규칙성, 빈도, 대조적 난이도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전 단원은 다음 단원을 위한 기본과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 교수요목은 문법에 중점을 두기에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범주마다 명백한 분류가 가능하다. 모든 언어행태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일관성 있고 유한한 체제 속에서 상호 관련시킬 수 있기도 하다(진윤희, 1991).

문법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문법체계를 따라함으로서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를 교과내용 구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습자가 대상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무시한다. 둘째로 교사 중심 교수요목으로 교수 방법이 습관형성에 그 기초를 두며 통제된 반복과 조작의 수단에 의해 강화되며 기계적 학습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문맥 안에서 의미를 가진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익히기 위한 단편적인 문장 제시로 인해 실제생활에서 응용도가 떨어져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있다. 넷째로 학습자에게 많은 중요한 문장구조를 제시하지만 그런 문장구조들이 원어

민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도임, 2003).

이처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 내용의 선정과 배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의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하여 언어의 기능보다 형식에 집중하게 한다.

2) 상황 중심 교수요목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장된 것으로 일정한 문맥 속에서 언어를 학습시키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 학습의 출발점을 상황 또는 문맥에 두는 것으로, 언어 사용이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문태혁, 2010).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교과 내용을 선정하게 되고 실제 사용 언어를 다루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은 특정한 분야의 학습자에게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마주칠 상황이 예측 가능하며 그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말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한 상황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의 용법보다는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다(김도임, 2003).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첫째로 정해진 상황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언어가 다양하기에 문법 규칙이나 문장들에 대한 학습이 일반화 될 수 없고 언어가 아닌 언어를 통한 행동을 배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황배열 및 조직을 위한 기준이 없다. 학습이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학습자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환경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로 학습자가 학습된 상황이 아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언어 상황을 마주했을 경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기도 하다(진윤희, 1991).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를 고려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같은 목적을 갖는 특정 집단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는 한계점에 부딪친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언어 학습 과정에는 적합하지 않고 한정된 특수 목적을 위한 언어 학습에 적합하다.

3) 화제 중심 교수요목

화제 중심 교수요목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화제,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화제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게 하며 지리나 역사, 수학 등의 학교 교육 과정의 다른 과목들과 연계하여 언어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주제별로 집단화해서 제시하고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되는 어휘를 사용하므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에 비해 어휘를 쉽게 조절하여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교수요목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할 수 있기에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좋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언어 사용과 활동이 가능하여 어휘 사용의 폭이 넓다(신미영, 2010).

화제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화제나 주제가 언어형태가 아닌 의미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주제는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4) 개념-기능 교수요목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은 언어의 기능에 중요성을 두어 의사소통을 위하여 구성된 교수요목이다. Wilkins(1976)에 따르면 문법 중심 교수요목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고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언제’, ‘어디서’에 대한 답이면 개념-기능 교수요목은 ‘무엇을’에 대한 답으로써 언어 사용의 목적에 중점을 둔 교수요목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교수요목은 의사를 표현하는 구조나 방법, 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내용에 의미를 둔다(신미영, 2010).

이 교수요목은 문법과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의 의사소통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기능을 다룸으로써 교수요목 가운데 가장 넓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요목의 내용 선정과 배열은 학습자의 요구와 유용성을 기초로 한다. 교사가 모든 학습수준의 언어를 가르칠 수 없고 학습자 또한 수행목적을 위해 모든 언어적 요소를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진윤희, 1991).

개념-기능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첫째로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쉽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능간의 난이도 조절 및 개념과 기능의 배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의미론적 범주 중에서 같은 기능과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구조가 많기에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의미의 선정이 어려우며 몇몇 범주간의 분명한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양한 문장 구조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에게 이를 다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도임, 2003).

5) 과정 중심 교수요목

과정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요목으로서 학습과정 및 교수절차에 따른 방법론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의 학습전략상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는 과정 중심 교수요목이 언어학적 이론이 아닌 교육학적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 교수요목은 내용이 미리 선정되어 있지 않고, 배열 또한 되어 있지 않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조정 및 결정 과정을 거친다(문태혁, 2010).

과정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첫째로 교육내용을 미리 선정하거나 배열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는 알맞지만 교육목표와 내용이 선정되어 있지 않기에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고 교과서를 포함한 자료를 미리 선정해 놓을 수도 없다. 둘째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조정 및 결정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매 수업시간마다 진행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신미영, 2010).

과정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요목으로 기존의 교수요목 구성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되었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절차 중심 교수요목

절차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 내용이 아닌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형태가 아닌 의미에 우선적 중점을 둘 때 가

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요구분석이나 목표의 진술보다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사용해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White 1988:102-107;문태혁 2010:재인용). 절차 중심 교수요목은 과제 중심 교수요목이라 얘기할 수 있다. 언어학습보다는 과제의 완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 교수요목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완성하며 무의식적으로 언어체계를 세워가는 것을 기대한다. 학습자의 욕구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고 배열하므로 내용을 미리 선정하거나 배열하지는 않는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보다는 과제 완성에 초점을 두기에 학습자가 언어적 오류를 범한다 해도 교사가 올바른 형태를 제시하는 데 그친다. 또한 과제 자체가 실제 문제 해결 상황을 제시하기에 의사소통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준다(김도임, 2003).

이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첫째로 학습자들의 과제성취를 위한 사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과 학습자들 간의 서투른 상호작용으로 인한 화석화를 우려하여 집단학습을 지양함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집단학습의 장점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난이도와 과제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는 학습자 요구에 따른 과제 적절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교수요목의 출발점이 학습자의 요구분석이나 목표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과제 상세화로부터 있기 때문에 선정된 과제와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미영, 2010).

2.2.2.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황 중심 교수요목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교수요목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으며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교수요목 즉, 어떤 교수요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하나의 교수요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을 지향한다. 하나의 교수요목을 고집하는 건 학습자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을 지양하고 상황 중심 교수요목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바탕이 되는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특징에 있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특징은 언어 학습의 출발점을 상황 또는 문맥에 두는 것으로, 언어 사용이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교과 내용을 선정하게 되고 실제 사용 언어를 다루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은 특정한 분야의 학습자에게는 강한 동기 부여가 되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처할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말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한 상황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들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갖는 한계점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언어가 다양하기에 문법 규칙이나 문장들에 대한 학습이 일반화 될 수 없다는 것과 학습자가 학습된 상황이 아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언어 상황에 처할 경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주노동자에게 이 한계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육 학습자가 아니라 특정목적 한국어 교육 학습자이며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어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상황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이고 가장 많이 의사소통상황이 발생하는 곳도 직장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해지겠지만 직장생활의 영역에서만 보자면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것은 안설희(2003), 추혜정(2004), 조선경(2006), 이종선(2009), 최혜진(2011), 오인미(2012) 등의 요구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의 요구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사전 취업 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했지만 이 때의 학습만으로는 이주노동

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없고 사전 취업 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의 교육 시간만으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취업 후 이주노동자의 한국어학습은 노동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학습을 듣는 경우에도 1학기에 20주, 1주일에 1회 2시간씩 수업을 듣기에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요구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항목으로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기 때문이다.

김재욱(2012)에서는 근무자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센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수업은 주말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짧은 시간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요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처한 상황 또한 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으로서 적절한 것이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다. 이 교수요목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적합한 교수요목이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은 학습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대화문과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에 큰 도움을 준다. 이로써 짧은 시간 동안에 이주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대화문의 제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대화문이 될 것이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실제 대화에 활용이 가능한 문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습시간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고, 학습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적절하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교재의 분석은 교수요목을 도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요목의 설계는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내용을 선택한 후 그 순서를 정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상세화하여 교재 구성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교재의 분석은 크게 교재의 외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과 내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의 외적 구성 분석은 제외한다. 외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교수요목을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재의 분석은 내적 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대화문을 따로 떼어서 분석할 것이다.⁹⁾ 대화문은 교수요목 가운데서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 가장 연관이 깊은 항목으로 상황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항목이다. 대화문의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대화문에 상황적 요소가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3.1. 분석 교재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재는 이주노동자를 학습자로 상정하여 개발된 교재들로 한정하고자 한다.¹⁰⁾ 2000년대 이후에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발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현재까지 나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종류는 많지 않다. 이 교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행한 교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로서 2003년에 국제노

9) 이 연구에서 대화문이라 명명한 부분은 교재의 본문 부분임을 밝혀둔다. 이소림(2008)에서는 대화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화문은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는 요소(대화문·듣기 자료·읽기 자료·쓰기 자료·문법·어휘·문화 등) 중 하나이다. 대화문은 보통 교재 내에 단원의 앞부분에 놓여 학습 목표를 노출 시킨다. 또한 언어기능 목표 달성을 위한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읽기나 쓰기 등의 타 언어 기능 학습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대화문에 나타나는 장면과 상황은 선명하게 설정되어 대화의 실제성을 높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화문은 학습자의 요구와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구성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재에서 제시하는 대화문은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제안할 수 있는 표준 교안이자 목표라 볼 수 있다. 대화문이 학습자의 실제생활과 연관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이주노동자는 취업 목적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단순 기능직 근로자만 해당하기에 비즈니스 목적 한국어 교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협력원에서 발행하였다. 현재 이 교재는 절판된 상태로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sejonghakdang.org>)에서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 교재 역시 절판이 되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교재를 발행한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10년 12월에 폐쇄됨으로 교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2010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이 발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가 발행되었다. 이 책들은 현재 출판이 되었으며 서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발행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출판이 되지 않아 서점에서 구할 수는 없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다.¹¹⁾

위의 교재 가운데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재는 출판이 되어 구입이 가능한 교재 또는 구하기에 용이한 교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언급한 교재 가운데 현재 절판이 되었고 발행 기관이 폐쇄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역시 발행기관이 폐쇄되고 절판이 되었지만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6>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교재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권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국제노동협력원	국제노동협력원	2003년	2권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허용 외 2인	국립국어원	2010년 2012년	2권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hrdkorea.or.kr>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ps.go.kr>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2012년	1권
--------------------------------	--------------	--------------	-------	----

3.2. 분석 항목

이 연구에서는 교재의 내적 구성과 대화문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는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항목을 선정하여 교재 분석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론』과 박선옥(2009), 방혜숙(2008), 이소림(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기준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의 내적 구성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어떤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교수요목의 설계는 교재 내적 구성의 내용과 구성 요소의 순서, 비중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화문의 분석은 교재들이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황이며 교재의 구성 요소 중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대화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교재의 대화문이 상황적 요소를 잘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내적 구성과 대화문의 분석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 교재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세부 항목	분석 기준
교재 내적 구성	단원의 구성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 단원 구성 요소의 제시는 적절한가?
	단원의 배열	· 단원의 배열은 적절한가?
	단원의 주제	· 주제가 일상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언어 영역	· 언어 영역이 잘 분배되었는가?
대화문	대화문의 주제	· 주제가 일상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대화문의 상황	·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잘 드러나는가? ·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대화자	· 대화자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가?
	대화문의 내용	· 대화문의 내용이 전형적인가? · 대화문의 내용이 실제적인가?

교재 내적 구성에 대한 분석은 각 교재의 단원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단원의 구성은 교재를 구성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교수요목의 설계와 교육내용 선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단원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단원의 구성에서 살펴볼 것은 ‘각 단원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와 ‘단원 구성 요소의 제시가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이다. 학습 목표는 각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각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피는 것으로 각 교재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수요목을 유추할 수 있다.

단원의 배열을 살펴봄으로써 각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요목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교수요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에 따라 내용 선택과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단원의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주제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각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들이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지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지 알아본다.¹²⁾ 각 단원의 세부 내용들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제를 분석한다면 각 단원의 내용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중 어떤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각 단원에 언어의 어떤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각 영역의 분배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언어 영역의 분배 또한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수요목에 따라 크게 사용하지 않는 언어 영역들이 존재하기에 언어 영역을 살핌으로써

12) 이 연구에서는 단원의 배경이 되는 곳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나눌 것이다. 직장서 일어나는 모든 일(직무 수행과 직장 내 문화,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 등)은 직장생활에 포함될 것이고, 직장 이외에 가정이나 센터,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행·우체국 등의 업무,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적 제도 소개, 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은 일상생활에 포함하여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교재에 바탕이 되는 교수요목을 유추할 수 있다.

대화문 분석은 의사소통의 요소와 결부해서 진행한다.¹³⁾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의 구성 요소 중 대화문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중심이 되는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이다. 대화문을 의사소통 요소와 결부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이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학습 효과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은 의사소통 요소와 떨어질 수 없고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화문의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대화문이 의사소통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대화문 분석은 주제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화문의 주제 분석에서는 대화문의 주제가 단원의 주제와 상이한지 확인한다. 대화문의 주제가 단원의 주제와 상이하다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주제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영역 중 어떤 영역에 속하는 지 알 수 있다. 주제를 분석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각 영역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화문의 주제 구성에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요소는 메시지로서 대화문의 주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화문의 상황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대화문의 장소는 대화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대화자의 어투나 서법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로 나뉘지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각 대화문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알아야 한다. 언어 기능은 대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¹⁴⁾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살펴보고 각 대화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언어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실제 상황을 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 대화문의 장소 구성의 바

13) 의사소통의 요소는 송신자(화자)와 수신자(청자), 메시지, 장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장면은 시간 및 공간, 문화, 사회적 맥락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의사소통기술』 2012:40-44) 이 연구에서는 장면 요소를 대화문의 장소로 한정하기로 한다.

14) 박선옥(2013)에서는 언어 기능의 개념이 ‘화행’과 같은 개념의 의사소통 기능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화행’의 의사소통 기능은 발화의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탕이 되는 의사소통 요소는 장면이며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요소는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왜 전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화자 관계는 크게는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화자들 간의 친소 관계와 서열 관계에 따라 대화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화자 간의 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대화자 관계 또한 꼭 필요한 분석항목이다. 대화자 관계 구성의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구성 요소는 송신자(화자)와 수신자(청자)이다.

대화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화문이 전형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소림(2008)에서는 대화문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화문은 전형성과 실제성을 가져야 하며 대화문의 내용에 이 자질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전형성은 많은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많은 대화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대화문을 선정해야 함을 말한다. 학습자가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성은 대화문이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을 말한다. 각 교재의 대화문이 전형성과 실제성을 가져야만 이주노동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기에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3.3. 분석의 실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교재의 분석은 각 교재별로 진행했고, 내적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한 후 대화문 분석을 하였다. 교재 분석의 순서는 교재의 발행 연도 순서를 따랐다.

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표 8>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내적 구성 분석표

단원	단원명	단원 주제	생활	단원의 구성
1	안녕하세요?	첫 인사	일상	기본 모음, 단어 배우기, 회화
2	안녕히 계세요.	작별 인사	일상	기본 자음, 단어 배우기, 회화
3	잘 먹겠습니다.	식사	일상	기본 자음,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회화
4	또 만나요.	안부 인사	일상	이중 모음,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5	가구 공장입니다.	사물의 이름	일상	겹자음, 단어 배우기, 발음차이 비교하기, 쓰기/읽기, 사전 사용하기, 문장 배우기
6	수를 셉니다.	수	일상	수 배우기, 단위 배우기
7	몇 시입니까?	시간	일상	시간 읽기, 날짜 읽기, 날짜 말하기,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8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일상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9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와 방향	일상	단어 배우기, 문법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10	무엇을 합니까?	일상	일상	문장 배우기, 단어 배우기, 문법 배우기
11	어떻게 갑니까?	이동과 수단	일상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12	오늘은 쉬고 싶어요.	병가	직장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13	허리가 아파요.	병원	일상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14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가능성	일상	문법 배우기,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15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일상	문장 배우기, 한국 배우기, 쓰기/읽기
16	무슨 색 가방이에요?	물건 찾기	일상	단어 배우기, 문장 배우기, 쓰기/읽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은 한글의 기초 자모를 독립된 단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1단원에서 5단원까지 각 단원에 도입 부분에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재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원의 가장 앞에서는 단원명을 제시하고 같은 장에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절인 대화문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그 후에는 ‘단어·문장·문법 배우기’와 ‘쓰기/읽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단원마다 배열이 다르고 빠지는 것들도 있다. 이 교재에서 ‘단어·문장·문법 배우기’는 단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제시된 것들도 있었는데 ‘단어·문장 배우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어나 문장이 아닌 문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많았다.¹⁵⁾

이 교재의 단원 배열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다.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그 단원의 문법 및 어휘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문법 항목을 기준으로 배열된 것도 아니다. 문법 항목은 난이도와 빈도수를 고려하여 배열을 하는데 이 교재의 문법 항목들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아 그 배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¹⁶⁾ 주제 및 기능을 기준으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문법 항목을 기준으로 배열된 것도 아니어서 이 교재의 단원 배열 기준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교재의 각 단원의 주제를 살펴보면 12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개의 단원 가운데 직장생활에 해당하는 단원이 1개뿐인 것이다.¹⁷⁾ 이를 통해 이 교재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일상생활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직장생활의 영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개 단원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재에 나타난 언어의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읽기이다. 하지만 듣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영역별로 고르게 분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이 교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쓰기 영역이다. 쓰기 영역이 문법을 학습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5) 7과의 ‘문장 배우기’에서는 조사 ‘-에’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고 있고, 8과의 ‘단어 배우기’에서는 연결어미인 ‘-고’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 9과의 ‘문법 배우기’에서는 ‘-(으)니까요?’의 문법을 제시하고 그 연습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바로 다음 쪽에 있는 ‘단어 배우기’에서 ‘-(으)니까요?’의 반복연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16) 문법 항목의 난이도는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빈도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정보나눔터(<http://ithub.korean.go.kr/user/main.do>)의 말뭉치를 참조하였다.

17) 5과의 경우에는 단원의 제목을 ‘가구 공장입니다’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문에 나타난 가구공장에 대한 문답 외에 ‘단어 배우기’나 ‘쓰기/읽기’ 등의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학습을 제공하고 있어 그 내용이 직장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 9>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대화문 분석표

단원	대화문 주제	언어 기능	상황 장소	대화자들 간의 관계
1	인사	인사하기	불분명	불분명
2	작별 인사	인사하기	불분명	불분명
3	식사	권유하기 감사 표현하기	불분명	불분명
4	안부	인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5	사물	정보 요청하기	가구 공장	동료-동료
6	수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불분명
7	시간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불분명
8	가족	소개하기	불분명	불분명
9	위치와 방향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불분명
10	일상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불분명
11	이동 수단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불분명
12	병가	아픔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권유하기	공장	동료-동료
13	진료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병원	환자-간호사
14	능력과 가능성	부인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불분명
15	추석	인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6	분실물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지하철 유실물 보관소	지하철 직원-의뢰인

대화문 주제의 경우 각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 주제 중 직장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12과의 ‘병가’뿐이다. 다른 대화문 주제(인사, 소개, 일상, 추석 등)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며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나타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 장소를 살펴보면 5, 12, 13, 16과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에서는 장소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대화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적 맥락을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대화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알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대화문의 상황 장소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분명’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로 두 기능 모두 16개 과 중에서 7개 과에서 나타나며 그 뒤로 ‘인사하기’가 4개 과에서, ‘권유하기’가 2개 과에서 나타난다. 이를 포함하여 이 교재의 16개 과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10가지 나타난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다. 대화문이 상황적 맥락이 없는 문장 제시에 그치다 보니 대화자들이 불분명하게 나타나 대화자들 간의 관계 또한 대화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대화문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을 선정하여 예로 들 것이다.

(1)

오늘은 쉬고 싶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언제부터 아파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약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약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늘 쉬고 병원에 가세요. 많이 아프면 공장부터 병원까지 택시를 타세요.

네. 잘 알았어요.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12과 대화문-

(1)은 12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예로 든 것이다. 이 대화문은 전형적

인 대화문이다. 이주노동자가 병가를 요청하는 장면이고 병가를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묻고 답하는 장면, 동료가 병원을 갈 것을 제안하는 장면 등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아플 때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 이 대화문을 인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13과, 15과, 16과의 대화문이 전형적이며 실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2)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일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평일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평일에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말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주말에 쇼핑을 합니다.

휴일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휴일에 집에서 쉽니다.

추석연휴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추석연휴에 친구를 만납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10과 대화문 -

(2)는 10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예로 든 것이다. 이 대화문은 다섯 쌍의 문답이 나열식으로 이어져 있다. 대화가 일관성이 없고 단지 단편적인 대화문 제시에 지나지 않기에 전형적인 대화문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적인 대화문이 아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은 12, 13, 15, 16과를 제외하면 모두 10과와 같이 전형적이지 않으며 실제적이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표 1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내적 구성 분석표

단원	단원명	단원 주제	생활	단원의 구성
1	입학을 축하합니다.	축하	일상	단어, 문법, 연습, 쓰기, 말하기, 읽기, 쓰기/읽기, 문제풀기
2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일상	단어, 문법, 연습, 말하기, 읽기, 쓰기, 문제 풀기
3	연휴 내내 낚시를 했어요.	연휴	일상	단어, 대화 연습, 문법, 연습, 읽기, 문제풀기, 쓰기
4	등산은 건강에 좋아요.	건강	일상	단어, 대화연습, 문법, 연습, 쓰기, 읽기, 문제풀기
5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안부	일상	단어, 문법, 연습, 읽기, 문제풀기, 쓰기
6	이 공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취업	직장	단어, 문법, 읽기, 문제풀기, 쓰기
7	빨리 좀 와 주십시오.	응급 상황	일상	단어, 문법, 읽기, 쓰기, 문제풀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는 단원 구성 체계가 1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교하다. 하지만 이 교재 역시 단원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원의 가장 앞에 단원명을 제시하고 같은 장에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 뒤로 ‘단어’, ‘문법’, ‘연습’, ‘쓰기’, ‘말하기’, ‘읽기’, ‘쓰기/읽기’, ‘문제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에 비해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배열이 단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자면 1, 2, 5, 6, 7과는 단어를 제시한 후 바로 문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3, 4과는 대화연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화연습이란 구성요소는 3, 4과에만 존재하고 다른 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재의 단원 배열 기준은 1권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2권의 경우 1권과는 달리 단원마다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다른 항목들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재는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을 지향하고 있지

만 그 핵심은 단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제(또는 화제)와 연관이 되어 구성이 된 화제 중심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다. 화제 중심 교수요목의 경우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화제를 난이도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제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재는 단원의 배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이 교재의 주제를 살펴보았을 때 7개의 단원 중 직장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은 6과 한 개 과뿐이다. 6과의 내용은 취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교재 역시 1권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일상생활의 영역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직장생활의 영역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교재는 대화 중심의 본문을 통한 말하기 학습과 읽기, 쓰기 영역이 각 과에 모두 등장하여 영역별 다양한 학습을 돕고 있다. 하지만 1권과 마찬가지로 듣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영역별로 고른 분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교재 역시 1권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원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인 ‘연습’이 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마다 쓰기 영역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대화문 분석표

단원	대화문 주제	언어 기능	상황 장소	대화자들 간의 관계
1	입학	인사하기 독려하기	교실	학생들-한국어 선생님
2	세배	인사하기 권유하기	집	부모님-자녀
3	연휴	인사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공장	동료-동료
4	야영	정보 전달하기 확인하기	교실	학생들-한국어 선생님
5	안부	인사하기 걱정 표현하기	불분명	학생-한국어 선생님

6	취업	소개하기 전달하기	공장	구직자-회사직원 부하직원-상사
7	응급 상황	요청하기 설명하기	기숙사	119직원-의뢰인

대화문 주제를 살펴보면 1권과 마찬가지로 단원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4과의 대화문만이 ‘건강’이 아닌 ‘야영’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화문의 내용이 야영을 가서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단원의 주제인 ‘건강’과 크게 벗어난 주제는 아니다. 2권의 대화문 주제 중 직장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은 6과의 ‘취업’뿐이고 다른 주제들(입학, 세배, 안부 등)은 일상생활 영역에 속하여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에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이 대화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황 장소를 살펴보면 5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5과 또한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화자 간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통해 교실 또는 교무실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상황 장면을 살펴보면 6과만 ‘취업을 위해 면접하러 가기’로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고 나머지 상황 장면들은 모두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인사하기’로서 4개 과에서 나타나고 그 뒤로 ‘정보 전달하기’가 2개 과에서 나타난다. 이를 포함하여 이 교재의 7개 과의 대화문 중에서 11가지의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나타난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잘 나타나 있어 학습자들이 대화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화자들 간의 관계가 3과의 ‘동료-동료’, 6과의 ‘구직자-회사직원’, ‘부하직원-상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단원의 대화문에 대화자 간의 관계로 ‘학생들-한국어 선생님’, ‘부모님-자녀’ 등이 제시되어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와 큰 차이점을 가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대화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선정하여 예로 들 것이다.

(3)

아밀: 안녕하세요? 서울 고용안정센터에서 이 공장에 가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철수: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아밀: 아밀이라고 합니다.

철수: 아밀 씨, 반가워요. 나는 김철수라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부장님!

부장: 무슨 일이야?

철수: 아밀이라는 외국인이 왔습니다.

부장: 아, 그 사람이 왔군. 잠깐 기다리라고 해.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6과 대화문-

(3)은 6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화문은 전형적이다. 이 대화문은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장을 찾아온 장면이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나, 방문의 목적을 묻는 장면, 공장 직원이 상급자를 부르는 장면 등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화문은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기에 실제성 또한 갖추고 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대화문들 모두 6과의 대화문과 같이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이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표 12>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내적 구성 분석표

대단원	소단원	단원명	단원 주제	생활	단원의 구성
0		한글의 모음과 자음, 모음과 자음의 결합			
1 소개 하기	1	안녕하세요?	인사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2	망치가 아닙니다.	도구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3	여기는 회사입니다.	위치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2 생활 하기	4	회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과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5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과거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6	연휴에 무엇을 할 거예요?	계획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3 외출 하기1 (일상)	7	안산에서 명동까지 어떻게 가요?	교통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8	된장찌개 주세요.	음식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9	좀 깎아 주세요.	쇼핑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4 외출 하기2 (업무)	10	은행에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은행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1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업 상담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2	짐이 무거워서 넘어졌어요.	병원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5 문화 알기	13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하지 마세요.	공공질서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4	나이가 많으니까 존댓말을 하세요.	한국의 문화와 예절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5	기숙사에서 빨래해도 돼요?	기숙사 생활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은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0단원을 둠으로 한글의 모음과 자음, 모음과 자음의 결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학습은 대단원과 소단원으로 이루어진다. 대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단원이라는 큰 틀 안에 소단원의 내용들이 맞춰지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소단원은 단원명을 가장 앞에 제시하며 그 다음으로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습해봅시다’는 각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을 반복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아자아자 한국어’는 쓰기와 읽기, 말하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함께 해 봅시다’와 ‘혼자서 해 봅시다’, ‘한국의 이모저모’ 등을 함께 구성하여 학습자를 위한 과제와 문화를 제시하였다.

이 교재의 단원의 배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요목 중 핵심이 되는 것이 개념-기능 교수요목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본문과 듣기, 문법, 어휘 등이 모두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기능을 바탕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제시가 되어 개념-기능 교수요목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념-기능 교수요목의 경우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쉽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기능간의 난이도 조절 및 개념과 기능의 배열에 어려움을 갖는다.¹⁸⁾

주제를 살펴보면 15개의 단원 중 직장생활과 관련된 단원은 총 3개의 단원으

18) 소개하기와 요청하기, 권유하기 등의 언어 기능은 초급의 학습자에게 학습이 되어야 하는 기능들이지만 각 기능 간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먼저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

로 2과, 3과, 4과이다. 2과는 도구를 주제로 삼아 학습자가 작업장에서 쓸 수 있는 언어의 학습을 도왔고 3과와 4과는 위치와 일과를 주제로 삼아 학습자가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직업상담’이라는 주제를 통해 직장생활의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도왔지만 이 외에 11개 단원은 역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교재는 각 단원에서 쓰기과 읽기, 말하기 학습을 구성하였고 모든 구성항목에 듣기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교재에 각 영역이 고르게 분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대화문 분석표

단원	대화문 주제	언어 기능	상황 장소	대화자들 간의 관계
1	인사와 소개	인사하기 소개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	도구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3	회사 건물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회사	지인-지인
4	일과	인사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5	취미와 여가생활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6	계획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7	이동과 수단	제안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8	음식 주문	제안하기 요청하기	식당	동료-동료 식당 주인-손님

9	물건 사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흥정하기 요청하기	가게	가게 주인-손님
10	은행 이용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사무실	동료-동료
11	상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인사하기	고용센터	상담자와 내담자
12	진료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권유하기	병원	환자와 의사
13	공공질서	금지 표현하기 설명하기	지하철	동료-동료
14	한국의 문화와 예절	권유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5	기숙사 생활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기숙사	동료-동료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은 대단원 밑에 소단원이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대단원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대화문 분석은 소단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화문 주제는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3과의 대화문 주제는 ‘회사 건물’이고 단원 주제는 ‘위치’이나 대화문의 내용이 회사 건물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것이기에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5과의 경우 대화문 주제가 ‘취미와 여가’이고 단원 주제가 ‘과거’이지만 대화의 내용이 지난 주말 즉, 과거에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주제는 다르지만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화문 주제에서 직장 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2과의 ‘도구’와 3과의 ‘회사 건물’, 4과의 ‘일과’뿐이다. 이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2과와 4과이며, 3과는 이

주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대화문 주제들(인사, 물건 사기, 은행 이용 등)은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대화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 장소를 살펴보면 6개 단원이 불분명하였는데, 이 단원들에서는 대화문의 제시가 단편적인 것에 그쳐 상황 장소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 10개의 단원에서는 상황 장소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로서 11개 과에서 나타나고 그 뒤로 ‘인사하기’가 3개 과에서, ‘설명하기’, ‘권유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가 2개 과에서 나타난다. 이를 포함하여 이 교재의 15개 과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10가지가 나타난다.

대화자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잘 나타나 실제 상황에서 대화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화자들 간의 관계는 ‘동료-동료’가 가장 많았다. `

대화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선정하여 예로 들 것이다.

(4)

이만: 아주머니, 치약 있어요?

아주머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만: 치약 한 개에 얼마예요?

아주머니: 2,200원입니다.

이만: 너무 비싸요. 좀 깎아 주세요.

아주머니: 그럼 2,000원만 주세요.

뚜언: 비누도 주세요.

아주머니: 자, 치약하고 비누, 여기 있어요.

-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9과 대화문-

(4)는 9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은 전형적인 대화문이다. 이주노동자가 가게에서 치약을 구매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치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흥정을 하고 다른 물품(비누)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등이 적

절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성 또한 갖추고 있어 이주 노동자가 가게에 물품을 사러 갔을 경우 이 대화문을 인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교재의 8과, 10과, 11과, 12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이 9과의 대화문과 같이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이다.

(5)

뚜언: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만: 회사입니다.

뚜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 안산에 있습니다.

뚜언: 작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 기숙사 옆에 있습니다.

뚜언: 회사에 누가 있습니까?

이만: 친구가 있습니다.

뚜언: 기숙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만: 컴퓨터가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3과 대화문 -

(5)는 3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은 5개의 대화쌍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대화쌍이 문답을 나열하고 있다. 이 대화문은 일관성이 없으며 단편적인 대화문 제시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대화문이 아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사용이 어렵기에 실제적인 대화문도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8과, 9과, 10과, 11과, 12과를 제외한 10개의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3과의 대화문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대화문 제시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형적이거나 실제적인 대화문이 아니다.

4)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표 14>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내적 구성 분석표

대단원	소단원	단원명	단원 주제	생활	단원의 구성
1 직장 구하기	1	선반 일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면접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2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만이라고 합니다.	소개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3	부품을 조립하는데 잘 안 돼요,	업무 설명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2 집 구하기	4	원룸은 편하지만 좀 비싸요.	집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5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이사, 살림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6	뚜연 씨는 늦게 자는 것 같아요.	룸메이 트와 의견조 율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3 직장 생활 하기	7	용접을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실수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8	야근을 하고 있어요.	야근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9	휴가를 신청하려고 해요.	복지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4 기관 이용 하기	10	소포를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1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이주 노동자 센터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2	회사를 옮겼거든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5 직장 문화 알기	13	회식을 하는 게 어때요?	회식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4	동료들과 친하게 되거든요.	회사 체육 대회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5	같이 퇴근하자.	높임말 과 반말	직장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6 여행 하기	16	설악산이 좋다고 해요.	여행 정보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7	이번 휴일에 남이섬에 갈래요?	여행 제안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18	바다가 멋있더라고요.	여행 경험	일상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역시 1권과 마찬가지로 대단원과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단원이라는 큰 틀 안에 소단원의 내용들이 맞춰지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소단원은 단원명을 가장 앞에 제시하며 그 다음으로 ‘대화’, ‘발음’, ‘듣기’, ‘문법’, ‘어휘’, ‘연습해 봅시다’, ‘아자아자 한국어’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교재 역

시 단원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교재의 1, 2권은 모두 같은 단원 구성을 갖추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재 구성을 이룬다. 1, 2권이 연계되어 있기에 1권에서 제시했던 어휘는 2권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교재의 단원의 배열 역시 1권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요목 중 핵심이 되는 것이 개념-기능 교수요목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본문과 듣기, 문법, 어휘 등이 모두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기능을 바탕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제시가 되어 개념-기능 교수요목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념-기능 교수요목의 경우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쉽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기능간의 난이도 조절 및 개념과 기능의 배열에 어려움을 갖는다.

2권과 1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제에서 드러난다. 1권에서 직장생활에 관련된 단원이 15개 중 4개에 그쳤다면, 2권에서는 18개의 단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개의 단원이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단원이다. 2권은 대단원별로 직장 및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으며 소단원의 내용은 대단원의 제목에 따르고 있다. 1, 2, 3과는 직장을 구하고 동료들을 소개받고 작업에 대해 지시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8, 9과는 직장생활 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실수를 했을 때의 대처법과 야근 및 휴가신청에 대해 다루고 있다. 13, 14, 15과는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 회식과 회사 체육대회 등에 대해 다루고 직장 안에서 높임말과 반말을 써야 할 때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일상생활에서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1권보다 더욱 심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고려하였다. 또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구직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교재의 주제들은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재 역시 각 단원마다 듣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아자아자 한국어’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학습을 제공하고 있기에 영역별로 고른 분배가 이루어졌다.

<표 15>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대화문 분석표

단원	대화문 주제	언어 기능	상황 장소	대화자들 간의 관계
1	면접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의지 말하기	회사	사장- 구직자
2	소개	인사하기 소개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사장-직원
3	작업	요청하기 설명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4	방 구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동료-동료
5	여가와 이사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만 표현하기 권유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6	배려와 조율	나무라기 걱정 표현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7	실수	설명하기 사과하기 확인하기 요청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사장-직원
8	야근	인사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격려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9	복지	걱정 표현하기 격려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지인-지인
10	우체국 업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우체국	지인-지인 우체국 직원-손님

11	상담	설명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센터	상담자-내담자
12	출입국관리사무 소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출입국관리사무소직 원-이주노동자
13	회식	권유하기 거절하기	회식장소	동료-동료
14	체육대회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5	높임말과 반말	인사하기 요청하기 권유하기	회사	동료-동료 부장-부하직원
16	여행 정보와 계획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제안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7	여행 제안	제안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8	여행 경험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감탄 표현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는 1권과 마찬가지로 소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화문 주제는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 큰 차이가 없다. 11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모두 같다. 11과의 대화문 주제는 ‘상담’이고 단원 주제는 ‘이주노동자센터’인데, 이 역시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내용이 대화문의 내용이기에 주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교재는 단원의 절반씩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대화문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홉 단원,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홉 단원이다. 대화문의 주제는 ‘면접’, ‘작업’, ‘야근’ 등 직장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과 ‘회식’, ‘높임말과 반말’ 등 직장생활 문화에

관련한 것들이 있다. 또한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이 ‘상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다.

대화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 장소를 살펴보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1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화문 제시가 단편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 상황 장소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문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는 16과, 17과, 18과의 경우도 상황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정보 전달하기’로서 11개 과에서 나타나고 그 뒤로 ‘정보 요청하기’가 10개 과에서, ‘인사하기’와 ‘설명하기’, ‘권유하기’가 3개 과에서 나타난다. 이를 포함하여 이 교재의 18개 과의 대화문에서는 19가지의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나타난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비교적 잘 나타나 실제 상황에서 대화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부분적으로나마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화자 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동료-동료’로 이를 통해서 이 교재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임을 알 수 있다.

대화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선정하여 예로 들 것이다.

(6)

상우: 이만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만: 야근 신청서를 쓰고 있어요.

상우: 오늘 야근이지요?

이만: 네, 잔업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돼요.

상우: 마감일이 언제지요?

이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상우: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힘들지요?

이만: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8과 대화문-

(6)은 8과의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은 전형적인 대화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야근을 하는 장면에서 야근신청서를 작성하고 야근을 하는 이유와 야근을 해야 하는 기간, 동료가 이주노동자를 격려하는 장면 등을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면도 갖추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이 대화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의 1과, 10과, 12과, 14과, 15과, 18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이 8과의 대화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다.

(7)

이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상우: 먼저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만: 설명이 좀 빠르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우: 자, 다시 들어 보세요.

이만: 부품을 조립하는데 잘 안 돼요.

상우: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세요.

이만: 오늘 처음 일을 했는데 어때요?

상우: 조금 힘든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3과 대화문-

(7)은 3과의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대화의 주제가 급격히 변하는 등 단편적인 대화 제시에 불과하기에 전형적인 대화문이라 할 수 없다. 대화 장소와 주제를 봤을 때는 이주노동자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 대화문이 실제로 사용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교재의 1과, 8과, 10과, 12과, 14과, 15과, 18과를 제외한 다른 단원의 대화문에서는 3과의 대화문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대화문 제시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형적이거나 실제적인 대화문이 아니다.

5)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표 16>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내적 구성 분석표

단원	단원명	단원 주제	생활	단원의 구성
예비 편	한글			
1	안녕하세요?	인사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2	저는 리한입니다.	소개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3	월급날은 며칠이에요?	날짜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4	휴대폰이 있습니까?	숫자와 단위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5	7시에 일어나요.	시간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6	기숙사는 어디입니까?	위치와 길찾기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7	만 원짜리 지폐가 두 장 있어요.	화폐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8	바지를 사려고 해요.	물품 구매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9	여기 부대찌개 주세요.	음식 주문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0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대중교통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1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취미활동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2	내일 약속 시간 잘 지키세요.	방문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3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여행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4	거기 119지요?	유용한 전화번호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5	인터넷 전화로 해요,	통신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공중도덕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7	작업을 끝내고 한 번에 치워도 돼요?	청소 및 위생	일상 및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8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종교 활동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19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생활 예절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20	한국어능력시험을 같이 봅시다.	교육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1	통장과 카드 나왔습니다.	은행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2	특급은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우체국 택배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3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병원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4	약을 드릴 테니까 잘 챙겨 드세요.	약국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5	예약한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력 지원기관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26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음식 문화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27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지리 및 기후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28	세배하는 법을 알아요?	한국 명절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29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	한국 풍습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30	나라는 작는데 GDP도 높고 세계적인 기업도 많으니까요.	세계 속의 한국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31	음악을 듣지 말고 일하세요.	직장 내 질서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32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 놓을게요.	기숙사 생활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3	돼지고기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요.	회식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문화, EPS-TOPIK연습
34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요.	성희롱/성추 행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5	버섯 딸 줄 알아?	업무수행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6	줄로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작업도구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7	환풍기도 틀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작업환경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8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요구 및 요청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39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문제해결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0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근무태도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1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산업안전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2	모두 타 버리면 큰일이야.	긴급 상황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3	외국인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장을 세 번 바꿨네요.	고용 허가제도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4	내년에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임금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5	근로계약을 1년만 해도 괜찮아요?	근로계약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6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 근무 수당을 받는다고요?	휴가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7	장해가 발생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	보험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8	취업하고 나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세요.	출입국 관리	일상 및 직장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49	고용센터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어요.	고충상담	일상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50	용어를 알아 둬시다.	산업안전보건 용어	직장	어휘 및 표현, 연습, 정보, EPS-TOPIK연습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는 예비편과 본 단원인 50개의 단원을 합쳐 총 51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편에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고 한글의 구성 원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는 단원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원의 가장 앞에서는 단원명을 제시하고 같은 장에서는 그 단원에서 배울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뒤로 ‘대화’, ‘연습’이 제시되고 같은 구조가 한 번 더 반복되어 ‘어휘 및 표현’, ‘대화’, ‘연습’이 2개씩 제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0과부터 49과까지는 ‘어휘 및 표현’이 1개씩만 제시가 되고 다른 항목들은 변함없이 2개씩 제시가 된다. 마지막 단원인 50과는 ‘어휘 및 연습’이 2개 제시되고 어휘에 대한 ‘연습’과 ‘정보’만 있을 뿐 나머지 항목들은 없다. ‘연습’은 문법 표현을 반복학습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화’의 대화문 가운데 제시된 문법 표현의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그리고 각 단원

19) 50과를 제외하고 모두 문법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50과는 문법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어휘에 대한 연습을 제시하였다.

마다 ‘문화’나 ‘정보’를 뒤에 구성하여서 학습자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교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 단원마다 EPS-TOPIK연습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EPS)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단원의 구성에 EPS연습 문제가 빠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교재의 단원의 배열을 살펴보면 30과까지는 일상생활을 31과부터는 직장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교재의 단원 배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 교재는 단원의 제목에서부터 단원의 마지막 내용까지 모두 주제(또는 화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제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다. 다른 교수요목들과 연계하여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된 교재이지만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이 화제 중심 교수요목인 것이다. 화제 중심 교수요목의 경우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화제를 난이도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제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재는 단원의 배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주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원이 32단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모두 관련된 단원이 2단원, 직장생활과 관련된 단원이 16단원이다. 일상 및 직장생활과 모두 관련이 있는 단원은 17과와 48과로 17과는 작업장과 기숙사에서의 위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48과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은 43, 44, 47, 49과를 제외한 31과부터 50과까지의 내용들이다. 각 단원의 내용들은 직장에서의 예절과 문화, 업무수행, 안전, 휴가 요청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어 직장 안에서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43, 44, 47, 49과에서는 고용허가제나 최저 임금, 장해보상금, 고용상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되었다. 교재의 내용이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는 하나 직장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단원들이 2/5정도 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제시된 주제들(외국 인력 지원기관에 대한 단원이나 고용허가제, 출입국 관리에 대해 소개)이 있어 이 교재의 주제들은 일상생활 및 직장생

활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재에서 두드러지는 언어 영역은 듣기와 쓰기이다. 반면에 말하기와 읽기 영역은 교재 내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EPS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재이다 보니 시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읽기와 말하기 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교재는 영역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표 17>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대화문 분석표

단원	대화문 주제	언어 기능	상황 장소	대화자들 간의 관계
1	인사	인사하기	사무실	직원-사장
	식사	감사 표현하기 권유하기	식당	식당 아주머니-손님
2	인사와 소개	인사하기 소개하기	공장	동료-동료
	가족	소개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	날짜와 요일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생일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4	전화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가구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5	시간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퇴근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6	공장 건물	정보 요청하기	공장	반장-직원

		정보 전달하기		
	고용센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도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7	물건 구입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신발가게	점원-손님
	환전	요청하기 사과하기	은행	은행원-손님
8	물건 구입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권유하기	옷 가게	점원-손님
	물건 환불	요청하기 권유하기	신발 가게	점원-손님
9	음식 주문	제안하기 요청하기	공장	반장-직원
	음식 주문	요청하기 설명하기	식당	식당직원-손님
10	이동 수단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이동 수단	초대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1	태권도	인사하기 권유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여가생활	인사하기 감정 표현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2	취업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당부하기	불분명	구직자-사장
	집들이	초대하기 감사 표현하기 감탄 표현하기	반장의 집	반장-직원

13	여행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권유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여행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여행사	여행사 직원-손님
14	119	요청하기 설명하기	기숙사	119 직원-의뢰인
	전화번호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114직원-의뢰인
15	인터넷 전화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인터넷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6	지하철 이용	금지 표현하기 사과하기	지하철	동료-동료
	길 건너기	금지 표현하기 수궁하기	도로	동료-동료
17	청소와 정리	지시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샤워	요청하기 지시하기	기숙사	동료-동료
18	종교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소원	인사하기 경험 말하기 기원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19	약속과 지각	설명하기 사과하기	버스	동료-동료
	공공질서	설명하기	지하철	동료-동료

		약속하기		
20	한국어능력시험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교육	인사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1	통장 만들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은행	은행원-손님
	송금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은행	은행원-손님
22	편지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우체국	우체국 직원-손님
	배송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우체국	우체국 직원-손님
23	부상	아픔 표현하기 권유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진료	요청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권유하기	병원	간호사·의사-환자
24	약 처방	권유하기 걱정 표현하기 아픔 표현하기	약국	약사-환자, 동료-동료
	약 처방	아픔 표현하기 권유하기	약국	약사-환자
25	이직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무료 진료	걱정 표현하기 아픔 표현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6	한국음식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음식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7	날씨	느낌 표현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도시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8	설날	인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추석	인사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29	돌잔치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한국 풍습	의문 표현하기 설명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0	한류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한국의 경제	감탄 표현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1	안전	금지 표현하기 지시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안전	금지 표현하기 지시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32	청소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기숙사	동료-동료
	휴게실 이용	걱정 표현하기 설명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3	회식	확인하기 설명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금지 음식	전달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4	성희롱	거절하기 감정 표현하기	불분명	주임과 직원
	성희롱	도움 구하기 권유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35	버섯 따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버섯밭	사장-직원
	기계 점검	요청하기 당부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36	작업 도구	권유하기 설명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작업 도구	지시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37	축사 청소	지시하기	축사	사장-직원
	페인트 작업	확인하기 지시하기	작업장	공장장-직원
38	보직 변경	요청하기 전달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교대 근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반장-직원
39	직장 내 불화	불만 표현하기	불분명	동료-동료,

		요청하기		사장-직원
	직장 내 불화	불만 표현하기 사과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40	근무태도	나무라기 변명하기	불분명	사장-직원
	근무태도	경고하기 사과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41	안전	권유하기	작업장	동료-동료
	안전	확인하기 요청하기	작업장	반장-직원
42	응급상황	전달하기 확인하기	작업장	반장-직원들
	화재	전달하기 지시하기	창고	사장-직원
43	사업장 변경하기	설명하기 권유하기	고용센터	고용센터 직원-의뢰인
	사업장 변경하기	요청하기 설명하기	고용센터	고용센터 직원-의뢰인
44	월급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불분명	지인-지인
	월급명세서	설명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사무실	동료-동료
45	근로계약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가구공장	사장-구직자
	재고용	권유하기 거절하기	공장	사장-직원들
46	휴일 근로 수당	확인하기 설명하기	공장	공장장-직원
	휴가	요청하기 권유하기	사무실	사장-직원

47	보상금	걱정 표현하기 설명하기	병원	동료-동료
	퇴직	감사 표현하기 설명하기	사무실	사장-직원
48	체류 기간 연장	요청하기 설명하기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뢰인
	체류 기간 연장	권유하기 부탁하기	공장	사장-직원
49	고충 상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불분명	외국 인력 상담센터 직원-의뢰인
	고충 상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외국 인력 상담센터	외국 인력 상담센터 직원-의뢰인
50	대화문 없음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49과까지 각 단원마다 대화문을 2개씩 제시하고 있고 50과는 대화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총 98개의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재들보다 많은 대화문이 있기에 더 많은 주제와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 교재가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화문 주제를 살펴보면 몇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는 단원의 주제와 다르지 않았다. 단원의 주제는 하나이고 대화문의 주제는 두 개인데 대화문의 주제들이 단원의 주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르게 나타난 주제들도 조금만 다를 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31과의 단원의 주제는 ‘직장 내 질서’였는데 31과의 두 개의 대화문 주제는 ‘안전’이다. 대화문의 내용이 직장 내에서 질서를 지킬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에 그 주제가 단원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39과 역시 단원의 주제는 ‘요구 및 요청’이었고 대화문의 주제는 ‘보직 변경’과 ‘교대 근무’로 이에 대한 요청이 내용이었기에 벗어나는 주제라 할 수 없다. 43과에서는 단원의 주제가 ‘고용허가제’인데 대화

문의 주제는 ‘사업장 변경’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고용허가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교재는 대화문의 수가 많은 만큼 대화문의 주제도 다양하다.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한 것들과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안전’, ‘버섯 따기’, ‘기계 점검’ 등 작업장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직장 내 불화’, ‘근무태도’, ‘월급’, ‘재고용’ 등 실제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나 이주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대화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장소를 살펴보면 30과까지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한 대화문을 제시하는 경우 그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 많았다. 가게나 공공기관(은행, 우체국, 병원, 약국) 등은 구체적인 장소로 제시되었지만 많은 경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제시되지 않는 때문이다. 31과부터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대화문은 작업장이나 공장, 사무실 등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장소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 고용센터를 장소로 하는 대화문도 있었다. 전체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대화문 장소가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교재의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로서 98개의 대화문 중 43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그 뒤로 ‘요청하기’가 23개의 대화문에서, ‘설명하기’가 21개 대화문에서 나타난다. 이를 포함하여 이 교재의 98개의 대화문에서는 34가지의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나타난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모든 대화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동료-동료’ 관계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사장-직원’과 각 기관의 직원과 의뢰인(이주노동자) 간의 관계가 많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8)

리한: 통장을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 네, 신분증 있으세요?

리한: 여기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만들고 싶어요.

직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 ... (잠시 후)

직원: 고객님의, 여기 통장과 카드 나왔습니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카드는 자동 인출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한: 감사합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재 21과 첫 번째 대화문-

(9)

반장: 인디카!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졸면 어떻게 해? 위험하잖아.

인디카: 죄송합니다.

반장: 어젯밤에도 또 늦게까지 컴퓨터로 채팅했지? 자꾸 그러면 징계 받도록 할 거야.

인디카: 징계요?

반장: 그래. 징계. 시말서를 쓰거나 감봉을 당할 수 있어.

인디카: 네? 반장님 앞으로 일찍 자고 열심히 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반장: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인디카: 네, 알겠습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재 40과 두 번째 대화문-

(8)은 21과의 첫 번째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은 전형적인 대화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은행을 이용하면서 통장을 만드는 상황인데 통장을 만들면서 카드를 같이 만드는 장면과 직원이 통장과 카드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장면 등에서 대화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하다. 실제성 또한 갖추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통장을 만들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중간에 통장과 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잠시 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9)는 40과의 두 번째 대화문이다. 이 대화문 역시 전형적인 대화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작업 중 유의해야 할 것과 경고, 경고에 대한 수용하는 장면 등에서 대화 내용이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실제 작업 중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제시하였기에 실제성을 가진 대화문이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위의 두 대화문과 같이 대체로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이다.

3.4. 분석 결과

교재 내적 구성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단원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단원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없었다. 학습목표는 각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각 단원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언어목표를 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모든 교재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각 교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 하나이다.

단원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경우 제시된 구성 요소들이 분배가 잘 되어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는 구성 요소들의 분배도 일정하지 않고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각 교재의 단원의 배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원의 배열을 살펴보는 것은 각 교재가 구성될 때 바탕으로 한 교수요목을 유추하는데 유용하다. 교수요목에 따라 중히 여기는 항목이 달라 내용의 선택과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원의 배열을 살펴본 결과 기준을 가지고 배열을 한 교재는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의 경우는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나 문법, 어휘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문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²⁰⁾ 그렇기에 이 교재를 구성하는데 바탕으로 된 교수요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법 중심 교수요목의 특징 중 하나인 문법의 난이도 및 빈도수에 따른 단원의 배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항목들이 초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그 배열이 빈도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경우 교재 구성의 바탕으로 되는 교수요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화제 중심 교수요목으로서 이들 또한 단원 배열의 기준을 알 수 없었다. 화제 중심 교수요목의 경우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화제를 난이도별

20) 이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요소가 문법이며, 그와 관련하여 언어 영역 중 쓰기 영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시되었다.

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제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재들은 단원의 배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의 경우도 교재 구성의 바탕이 되는 교수요목의 특징 때문에 단원 배열 기준을 알 수 없었다. 이 교재들의 구성의 바탕이 되는 교수요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개념-기능 교수요목으로서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쉽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기능 간의 난이도 조절 및 개념과 기능의 배열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교재의 단원 배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원의 배열이 적절히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각 교재의 단원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주제들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확인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경우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가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보다 많이 적었다.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가 1권, 2권 각각 1개의 단원만 있었다. 이 교재들은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를 더 많이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역시 15개의 단원 중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는 3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들이어서 위의 세 교재는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는 18개의 단원 중 9개의 단원이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도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경우 50개의 단원 중 앞의 30개 단원은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뒤의 단원들은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제시된 주제들(외국 인력 지원기관에 대한 단원이나 고용허가제, 출입국 관리에 대해 소개)도 있어 이주노동자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교재는 제시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양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제가 많고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여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그 양이 많고

각 주제별로 선정하여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내적 구성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 영역에 대한 것이다. 각 교재가 어떤 언어 영역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는 듣기가 없어 언어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말하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 중 ‘쓰기’ 영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나타나 있고 잘 분배가 되어 있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경우 ‘읽기’와 ‘쓰기’ 영역은 잘 나타나 있었지만 ‘말하기’와 ‘듣기’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 교재여서 구어적 측면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교재의 대화문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각 대화문의 주제 분석이다.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의 주제들은 단원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주제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단원의 주제 안에 속하는 주제들이었고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한 부분들 역시 각 단원의 주제들이 속한 영역과 같았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의 상황이다. 대화문의 상황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화의 전달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황 장소는 대화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 것으로 대화자 간의 관계 및 대화문의 내용과 큰 관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상황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 많은데 이 대화문들은 대화자 간의 관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모두 상황 장소가 잘 드러났고 대화자 간의 관계도 잘 드러나 대화문에 제시한 대화에서 상황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상황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 많았다. 이들의 대화문에서는 대화자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대화문들이 단편적인 대화 제시에 그쳐 대화의 상황

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 역시 상황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화문에 등장한 대화자 간의 관계와 그 대화내용을 통해 대화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상황장면의 경우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각 교재의 대화문에서 나타난 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제시가 되었다.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지 알기 위해서 각 교재의 대화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실제적인 대화문 구성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각 대화문에서는 언어 기능들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잘 드러냈다. 1권에서는 16개 대화문에서 10가지의 기능을 통해, 2권에서는 7개 대화문에서 11가지의 언어 기능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드러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의 각 대화문에서도 언어 기능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잘 드러냈다. 1권에서는 15개 대화문에서 10가지의 언어 기능을 통해, 2권에서는 18개 대화문에서 19가지의 언어 기능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드러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각 대화문에서도 언어 기능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잘 드러났는데 이 교재의 98개의 대화문에서 34가지의 언어 기능을 통해 그 목적을 잘 드러낸다.

각 교재들에서 나타난 언어 기능들을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기능은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다. 이 기능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서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기능들은 ‘설명하기’, ‘요청하기’, ‘권유하기’, ‘인사하기’ 등이 있었다. 이 외에 교재에서 나타난 기능들 가운데 ‘지시하기’는 직장생활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대화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그 내용이다. 대화문의 내용이 전형성과 실제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대화문인지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에서는 16개의 단원 중 4개의 단원만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였기에 교재 전체적으로는 대화문의 실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에서는 7개의 단원 모두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에서는 15개의 단원 중 5개의 단원이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였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에서는 18개의 단원 중 7개의 단원만이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였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 역시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 중 소수만 전형적이고 실제적이었으므로 교재 전체적으로는 대화문의 전형성과 실제성이 부족하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에서는 50개 단원의 98개의 대화문이 모두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들은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양이 많고 이주노동자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주제들도 있어 선별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8> 교재 분석 결과

분석 교재 분석 기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고 용 허 가 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다
단원 구성 요소의 제시는 적절한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단원의 배열은 적절한가?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단원의 주제가 일상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일상 및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된 다	일상 및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된 다
언어 영역이 잘 분배되었는가?	잘 분배되 지 않았다	잘 분배되 지 않았다	잘 분배되 었다	잘 분배되 었다	잘 분배되 지 않았다

대화문의 주제가 일상 및 직장생활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일상 및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된 다	일상 및 직 장 생 활 의 영역에 도움이 된 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잘 드러났는가?	잘 드러나 지 않는다	잘 드러난 다	잘 드러나 지 않는다	잘 드러나 지 않는다	잘 드러나 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잘 드러난 다	잘 드러난 다	잘 드러난 다	잘 드러난 다	잘 드러난 다
대화자 간의 관계는 잘 드러났는가?	잘 드러나 지 않았다	잘 드러났 다	잘 드러났 다	잘 드러났 다	잘 드러났 다
대화문의 내용이 전형적인가?	전 형 적 이 지 않다	전 형 적 이 다	전 형 적 이 지 않다	전 형 적 이 지 않다	전 형 적 이 다
대화문의 내용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가?	실 제 적 이 지 않다	실 제 적 이 다	실 제 적 이 지 않다	실 제 적 이 지 않다	실 제 적 이 다

4.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알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여 1주일에 1번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정도의 학습 시간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4.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법

선행 연구들의 요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한국어 학습 목적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적은 시간의 학습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욱(2012)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학습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교수요목이다. 이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수업은 학습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생각해야 할 설계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교수요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알맞은 대화문의 제시다. 대화문은 교재의 구성 요소 중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이다. 이소림(2008)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하는 대화문은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제안할 수 있는 표준 교안이자 목표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대화문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접하는 상황 가운데 표준이 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할 것이기에 그에 맞는 대화문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대화문의 구성은 의사소통의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할 것이다. 상황에 적합한 대화문의 제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요소는 송신자(화자)와 수신자(청자), 메시지, 장면(장소) 등이 있다. 의사소통 요소를 바탕으로 한 대화문의 제시와 숙달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교수요목의 구성에서 주제와 기능이 라는 요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결국은 언어 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언어 기능을 학습하는 것 역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기에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는 상황과 떨어뜨릴 수 없는 항목이기에 주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교수요목의 구성에서는 문법항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법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국어 형태 학습의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학습 상황에서 문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언어의 형태보다는 사용을 중요시하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법 항목의 학습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고 문법의 오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시해야 하지만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서는 문법의 교수-학습은 대화문에 나타나는 문형을 통해 학습하기에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문법도 이주노동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의 구성 방안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구성을 한다면 대화문을 중심으

로 구성을 하되 그에 합당한 주제와 기능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 항목 역시 난이도와 빈도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화문의 제시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한 혼합-다층적 교수요목을 지향해야 한다.

4.2. 상황 중심 교수요목 구성을 위한 상황 목록

이 절에서는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혼합-다층적 교수요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을 목록으로 제시한다. 상황 목록에 제시할 것은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와 상황이 벌어지는 때이다. 목록제시의 근거는 선행 연구들의 요구조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과 기존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들이고 이 연구의 목록제시 방식은 단원명과 상황의 제시이다.²¹⁾ 상황의 제시는 교재의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상황과 직장생활의 상황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직장생활의 세부항목으로는 ‘사무실에서’, ‘작업장에서’ 등이 있고 일상생활의 세부항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기숙사에서’, ‘센터에서’, ‘기타’ 등이 있다.²²⁾

안설희(2003)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의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에 대한 요구와 일상생활의 필수적 의사소통상황 및 기능, 선택적 의사소통상황 및 기능의 순위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추혜정(2004)에서는 요구조사를 통해 대체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오인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교재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직업 관련 용어와 표현을 일 순위로 꼽기도 하였다. 최혜진(2011)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를 통해 그들이 한국어 사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크게 일상생활과 노동, 의료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21)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경우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단원명으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은행에서, 우체국에서, 병원에서 등 구체적인 상황이 붙는다.(김도임, 2003)

22) 일상생활의 세부항목 중 ‘기타’에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습자들도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근간으로 한다. 이 상황들은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꼭 접하게 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단원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에 적절한 상황 항목을 참조하여 제시한다. 각 교재의 단원의 구성 요소 중 상황 항목과 관련하여 상황적 요소나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대화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교재의 대화문들 가운데서 상황적 요소 또는 상황을 참조하여 상황 항목으로 제시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화문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교재를 참조하여 보다 적절한 상황목록을 제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2’의 경우 대화문에서 상황적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의 대화문에서는 상황적 요소가 잘 드러났으나 이 교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해 이주노동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적 요소가 아니었기에 참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19> 직장생활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 목록

상황 장소	상황이 벌어지는 때
사무실에서	면접을 볼 때
	사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
	회사에 대해 소개할 때(소개 받을 때)
	월급에 대해 물어볼 때
	휴가를 신청할 때
	병가를 신청할 때
	출·퇴근 시간을 물어볼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작업장에서	동료와 처음 만났을 때
	동료와 대화를 할 때
	도구를 찾을 때
	도구의 사용법을 물을 때
	사용법을 한 번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일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작업을 지시할 때
	무슨 일을 하는 지 설명할 때
	동료와 싸웠을 때
	밥 먹으러 가자고 요청할 때
	퇴근을 요청할 때
	회식을 가자고 제안을 받을 때
	안전수칙에 대해 얘기할 때
	금지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
	다쳤을 때(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동료가 다쳤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주노동자가 직장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 목록에 대해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주노동자는 근무시간이 길어 하루 중 직장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도 역시 직장에서의 대화를 할 때이다.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대화를 하는 장소는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면접이나 급여 상담, 업무에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체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사무실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작업장은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업무의 대부분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작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표 20>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 목록

상황 장소	상황이 벌어지는 때
공공기관에서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때
	우체국에서 소포를 부칠 때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직 및 이직을 할 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처음 만났을 때
	룸메이트와 대화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직 상담을 할 때
	이직 상담을 할 때
	직장 내 어려움(폭행, 성추행 등)을 상담할 때
	임금 체불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 가입을 상담할 때
	한국어 수업을 받을 때
	컴퓨터나 운동(태권도, 수영 등) 수업을 받을 때
기 타	길을 물어볼 때
	타인과 약속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터넷, 잡지 등을 읽을 때
	텔레비전, 영화를 볼 때
	라디오를 들을 때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집을 구할 때
	이사를 할 때
	집들이 할 때

이주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주노동자가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은 직장에서 더 많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는 직장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직장생활과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 직장이라는 한정된 생활공간이 아닌 사회라는 더 넓은 생활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이 목록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제시한 이유는 공공기관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곳이지만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위해 설립된 곳이기 때문이다. 기타에 해당하는 상황 목록들은 장소를 한 곳에 특정 지을 수 없기에 기타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목록들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처하게 될 상황들인데, 이 목록들은 안설희(2003), 조선경(2006)에서 이루어진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업을 듣는 이주노동자의 학습 요구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주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제시되는 상황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 목록 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더 세분화된 상황 목록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상황 목록의 제시는 의사소통 요소와 큰 관련이 있다. 교재를 구성하는 항목 중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대화문이고 대화문은 의사소통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요소의 화자와 청자는 대화문에서 대화자 관계 구성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 요소는 실제 대화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화문에서 대화자 간의 관계(상하 또는 친소 관계)도 제시한다. 화자와 청자 간의 전달되는 메시지는 실제 상황에서 대화의 주제가 된다. 대화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언어 기능을 통해 나타날 것이고 대화문의 장소는 실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된다. 따라서 세분화된 상황 목록은 의사소통 요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표 21> 세분화된 상황 목록

상 황	등장인물 (화자와 청자)	메시지 (주제)	메시지 전달 목적 (기능)
사무실에서 병가를 신청할 때	1) 이주노동자와 사장님 2) 이주노동자와 관리자(상급자) 3)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4)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1) 감기 2) 골절상 3) 두통 4) 장염	1) 요청하기 2) 설득하기 3) 아픔 표현하기 4) 확인하기

		5) 눈병 6) 치통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1) 이주노동자와 관리자(상급자) 2)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3)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1) 기계 고장 2) 도구 파손 3) 지시 불이행	1) 사과하기 2) 설명하기 3) 변명하기 4) 걱정 표현하기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1) 이주노동자와 은행원 2) 이주노동자와 관리자(상급자) 3)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1) 예금 2) 체크카드 3) ATM 사용	1) 요청하기 2) 정보 요청하기 3) 정보 전달하기 4) 설명하기
외국인력지 원센터에서 이직에 대해 상담을 할 때	1)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력지원센 터 소속 상담원 2)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1) 이직 고민 2) 이직 상담	1) 설명하기 2) 요청하기 3) 이해하기 4) 동의하기 5) 정보 요청하기 6) 정보 전달하기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 이주노동자와 상점 점원 2)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3)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1) 물건 선택 2) 물건 구입 3) 흥정	1) 설명하기 2) 설득하기 3) 흥정하기 4) 요청하기 5) 정보 요청하기 6) 정보 전달하기

위 목록은 앞에서 제시한 상황목록 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더 상세히 제시한 것이다. 이 목록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와 메시지(주제)를 제시하였고 메시지 전달 목적을 밝힘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처할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물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와 사장님, 관리자(상급자) 등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친소 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자와 노동자 등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같은 메시지를 가져도 인물 간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 및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각 상황에 전형적인 것들을 제시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이주노동자는 각 상황에 처할 때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 전달 목적은 언어 기능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인물 간의 관계와 메시지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이 가능한 기능들을 제시하였고 분석한 교재들

에서 나타난 기능들을 참조하였다. 장소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상황에 이미 장소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목록은 상황에 맞는 대화문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재 또는 수업에서 상황에 맞는 대화문을 제시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 목록 중 하나를 선정하여 대화문의 예시를 제시한다. 제시하는 대화문은 전형성과 실제성을 바탕으로 대화문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표 22> 상황에 맞는 대화문의 예시-1

(사무실에서)	
알 슬 :	반장님, 저 오늘 하루만 쉴 수 있을까요?
반 장 :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알 슬 :	어젯밤부터 계속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반 장 :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파? 감기 걸렸나? 약은 먹었어?
알 슬 :	네. 약은 먹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침이 나고 아파요.
반 장 :	그래? 병원 가야겠네.
알 슬 :	네.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반 장 :	그럼.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 사장님께서는 내가 말씀 드릴게.
알 슬 :	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일 열심히 할게요.
반 장 :	그래. 오늘은 잘 들어가고. 내일 봐.

이 대화문은 사무실에서 병가를 신청하는 상황의 대화문이다. 대화문의 등장 인물은 이주노동자와 관리자(상급자)이다.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 상급자는 이주 노동자에게 반말을 쓰고 이주노동자는 존댓말을 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문을 구성하였고 대화문의 메시지(주제)는 병가다. 감기에 걸린 이주노동자가 요청과 설명,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상급자에게 알리고 병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화자 간의 관계가 변화가 있다면 대화 내용 역시 변할 것이다. 변경된 대화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23> 상황에 맞는 대화문의 예시-2

(사무실에서)

알 슬 : 상민 씨, 나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상 민 : 그래요? 많이 아파요?

알 슬 : 네. 어젯밤부터 계속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상 민 : 이런, 많이 힘들겠네요. 약은 먹었어요?

알 슬 : 네. 약은 먹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침이 나고 아파요.

상 민 :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알 슬 :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 민 : 병원에 가려면 반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반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알 슬 : 그래요? 그럼 그래야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상 민 : 아니에요. 많이 아플 텐데 빨리 반장님께 가 봐요.

이 대화문은 위에서 제시한 대화문과 메시지(주제)는 같지만 대화자 간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직장 내에서는 반말보다 존댓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문을 구성하였으며 감기에 걸린 이주노동자가 그 동료에게 자신이 감기가 걸린 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다.

이처럼 같은 메시지(주제)를 가지더라도 대화자 간의 관계가 변하면 대화의 상황과 내용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교육하면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3. 상황 중심 교수요목 제시

이 절에서는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수요목을 제시한다. 제시할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앞 절에서 밝힌 설계 방법과 상황 목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1주일에 1번, 2시간씩 20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환경에 맞게 1주 1회, 2시간씩 20차에 걸친 교수요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업이기에 선행연구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단원을 배열한다.

<표 24>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단 원	단원명	상황	주제	기능
1	사무실에서 I	면접을 볼 때	구직(취업)	자기 소개하기
2	작업장에서 I	관리자(상급자)와 처음 만났을 때 동료와 처음 만났을 때	인사와 소개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3	작업장에서 II	도구를 찾을 때 도구의 사용법을 물을 때	도구	위치 말하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4	사무실에서 II	출·퇴근 시간 물어볼 때	시간	시간 알아보기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5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음식 주문하기
6	작업장에서 III	작업을 지시할 때	명령	지시하기 수용하기
7	작업장에서 IV	일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	사과하기
8	사무실에서 III	병가를 신청할 때	병가	요청하기 아픔 표현하기
9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	아픔 표현하기 요청하기
10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 구입	아픔 표현하기 설명하기 요청하기
11	길거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12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송금을 할 때	은행업무	설명하기 요청하기
13	우체국에서	우편이나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업무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요청하기
14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 구입	홍정하기 요청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15	작업장에서 V	안전수칙에 대해 얘기할 때	안전	확인하기

				설명하기
16	작업장에서Ⅵ	동료가 다쳤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요청하기
17	작업장에서Ⅶ	회식을 제안 받을 때	회식	권유하기 설명하기
18	외국인력지원 센터에서Ⅰ	임금체불에 대해 상담 받을 때	임금 체불	설명하기 요청하기
19	외국인력지원 센터에서Ⅱ	이직 및 구직 상담할 때	이직과 구직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20	사무실에서Ⅳ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비자 연장	부탁하기 요청하기

이 교수요목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이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을 하기 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치르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 이 교수요목 구성이 전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기초적인 한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교수요목에서는 한글 자모 학습을 제외하였다.

이 교수요목 구성에서 문법항목은 제외하였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언어의 형태보다는 사용을 중요시하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법항목의 학습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고 문법의 오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쳐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법항목은 실제 단원 구성에 들어가 대화문을 제시할 때 대화문에 나타난 문형을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교수요목 구성안을 살펴보면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단원이 11개이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단원이 9개이다. 직장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공공기관이나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단원 배열의 기준은 안설희(2003), 조선경(2006), 오인미(2012) 등의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주제와 기능은 상황에 따른 것으로 상황과 떨어질 수 없기에 함께 제시하였고 주제와 기능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처할 경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5. 결 론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표준 교육과정 없이 전문 교육기관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서론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교육에 앞서 교수요목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교수요목 구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가진 가장 큰 한계점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 시간의 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교수요목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수요목으로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학습 시간이 부족한 이주노동자에게 짧은 시간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교수요목으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발행된 한국어 교재들이 그들에게 적절한 교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확인 결과 현재까지 발행된 교재들 가운데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교재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재도 있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교재이기에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재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으로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한 혼합-다층적인 교수요목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수업자료를 제시하고 교수요목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수업자료는 이주노동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로 구분하여 상황 목록을 제시하였고 교수요목의 구성은 이 상황 목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학습시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적합한 교수요목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은 학습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대화문과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주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시간의 부족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만족스런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이 연구에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조사를 보탠다면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유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단위 구성을 제시하기 까지 연구가 이어진다면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주)도서출판 하우
서종학, 이미향. (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한승주. (2012). 『의사소통기술』. 청목출판사

2) 논 문

구민숙. (200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교재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도임. (2003). 「취학 전 아동의 영어 교수요목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아. (2013).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욱. (2012).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정책에 대한 소고」.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
김정숙. (2003).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Vol.14 No.3
류영석. (2009).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취업 전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태혁. (2010). 「초등학교 통합영어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현식. (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Vol. 15

No.1

- 박선옥. (2009). 「學文 目的 韓國語 말하기 教材 分析을 통한 教材 開發 방향 연구」. 『語文研究』 Vol.37 No.3
- _____. (2013). 「형태와 기능 통합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연구」. 『漢城語文學』 Vol.32 No.-
- 방혜숙. (2008). 「한국어 교재 대화 연구 : 대화 구조와 사회언어학적 변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광석. (2008). 「이주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영. (2010).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기능 교수요목 설계 : 한국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설희. (2003).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인미. (20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 교육 현황 및 ‘비즈니스 한국어’ 개발 검토」. 『한국어 교육』 Vol.14 No.2
- 이소림. (2008). 「한국어 교재의 제시대화문 구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선. (200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개발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선. (2006).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향. (200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수요목 설계 : 과제선정 및 실제자료 구축」.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 (2006).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 교육』 Vol.17 No.3

- 진윤희. (1990). 「의사소통 관점에서 본 영어과 교수요목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201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혜정. (2004).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재 구성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 충청도 지역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 진. (2010).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4).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4) 한국어 교재

- 국제노동협력원. (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국제노동협력원
- 국제노동협력원. (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국제노동협력원
- 허용 외 2인. (2010).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1』. 국립국어원
- 허용 외 2인. (2012).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국립국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한국산업인력공단

2. 국외문헌

Nunan, D. (1988). Syllabus desig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hite, R. V. (1988). The ELT curriculum: Design, innovation and managem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Wilkins, D. A. (1976). Notional syllabu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Study on the Method to Design Syllabus for Immigrant Worker

Kim, Ha-Lim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immigrant worker to suggest state based syllabus in order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biggest aim that immigrant worker study Korean is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But the most immigrant workers are lack time to study so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That is why they need the Korean education which is very efficient for them and make them improve their language skill in short time.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 the Korean education for immigrant workers should be state based syllabus. The state based syllabus is mainly composed up dialogue. Also the syllabus would make them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in short time. This study represents the state based syllabus based on the situation of immigrant workers.

So in the 2nd chapter, I searched about the Korean education for immigrant workers. First of all, I wrote the present situation about

immigrant workers and the Korean education for them and examined the breaking point of their Korean education. Also I represented the state based syllabus as the best syllabus for immigrant workers. In the 3rd chapter, I examined the Korean text book for immigrant workers. First, I chose the subject of analysis and analyze them with analytical framework. I analyzed structures of text book and the dialogues. I checked the each syllabus of books. Also I checked if the dialogue presents the situation or not. In the 4th chapter, I suggested the method to design the syllabus and list of state based syllabus according to 2nd and 3rd chapter. After that I suggested the state based syllabus that can be used in the Korean class. In the 5th chapter, I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the discussion which we would discuss about this study in future.

【Keyword】 : Immigrant workers, Syllabus, Korean syllabus, State based syllabus, Analysis text books, Dialogu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lement